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59호 발행일 : 2006년 1월 22일

2006년 교회표어 :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김현령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ontesta@nate.com

함즐함울 pcltv.org에서 PDF* 파일로 열람

각부서의 행사 및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하여 교회의 공동체성 형성



된다. 2006년 들어 185호(1월 15일자)부터는 주님의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pcltv.org에서 PDF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해 상단 우측에 있는 [함즐함울 PDF]를 클릭하면, 주일에 받아보는 신문 원본 그대로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부분을 확대/축소하여 기사를 읽는 것이 가능해 진다. PDF로 '함즐함울'을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를 다운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함즐함울 PDF]로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

*PDF :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로 미국 어도비시스템즈(Adobe Systems)에서 개발한 애크로벳(Acrobat)이나 애크로벳 캡처 또는 이와 동등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포맷이다.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 소식지로 매주일 1,000부를 발행, 성도들에게 배부된다. 각부서의 행사 및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함즐함울'의 목적이다. 소옥민 집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함즐함울' 기자는 주일은 물론, 주중에 이루어지는 교회 안팎의 행사 등을 취

재, 사진과 기사를 웹하드에 올리게 된다. 수요일 오후까지 모아진 원고는 수정작업을 거쳐 목요일 오전에 편집에 들어간다. 금요일 오후 편집을 마무리하고 인쇄소에 넘겨지면 토요일 오후 완성본으로 교회에 도착, 사무실직원들의 도움으로 주보와 함께 교회의 곳곳에 배치되어 주일에 성도들을 기다리게

길가에교회

2면



함즐함울 기자가 지난해 12월에 창립한 "길가에교회"를 탐방했다.

어와나 불티단 모집

2면



2006년 주님의교회 어와나가 7~9세의 불티단을 모집한다.

2005년 재직회재정보고

3면

'씩트네' 찬양축제

4면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봉사부 전체가 부족한 인원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2006년 1월 네 번째 주일이다. 모든 사역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새 출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부 전체가 일꾼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의일 목사는 전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호를 통해 주차안내부, 주방부, 봉사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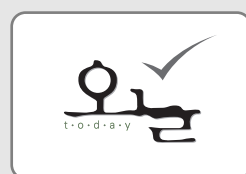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면 정문과 학교 주요 요소요소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교우들이 있다. 그 들을 하얀 점퍼를 입고 밝은 미소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교회를 찾는 교우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주차안내부 사역팀원들이다. 1부에 200여대, 2부에 600여대, 3부에 800여대의 차량이 학교 교정 곳곳에 주차된다. 주차안내부는 교회에 와서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다시 교회 밖을 나

가는 것을 원활히 하고 자동차의 추/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차량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원활히 돕기 위해서는 사역팀원의 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은 주방부, 주일 커피를 준비하는 봉사부도 마찬가지이다. 봉사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목사는 "자신의 시간이 아깝고 힘들다고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재미있는 교회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길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4면에서 계속)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로 초대하십시오. 4부 예배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전도 예배 "오늘"의 주제는 "인정사정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다. 흔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풀어 주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이 주제와 관련 오늘 연극팀은 '아버지가 아시면...'이라는 연극을 준비했고, 게스트로 남성4인조 보컬그룹 "유티"이 초대 되어 찬양을 한다.

유티는 남성4인조 보컬그룹(전인국,백승찬,송승현,김성훈)으로 2004년에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주제로 1집을 출시하여 복음적 메시지와 남성보컬의 파워풀함과 하모니가 잘 조화를 이룬 음악사역팀으로 정평이 나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는 그룹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유티(U)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이 유티의 고백이며 비전이라고 한다.

사진학교 전시회 마칩...

미술인선교회 전시회 이어 새로운 교회문화의 시도



양육클래스 사진학교 2기 졸업작품 전시회가 1월15일 까지 지하 제2식당에서 있었다. 임근원 집사는 빛의 미학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형상화하는 작업인 사진에

술을 강의하고, 수강생들이 사진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인 빛의 조절(노출)과 표현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방법을 습득하게 했다. 특히 임집사는 주님의교회의 역사적인 기록이 사진이나 영상물로 보존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진학교 양육생들부터 이러한 일에 소신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사진의 기법을 충분히 접목 하면서 김용숙 집사의 '아소산' (작품명)을 비롯, 2기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매달 정기적인 출사를 통해 사진예술의 격을 높이는 모임도 가질 예정이다.

29일 설날, 주일학교 통합예배

돌아오는 주일, 29일은 교회학교예배가 일시적으로 통합된다. 9시 30분, 썬트네와 레인보우는 1층 유년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지하 중예배

실에서 예배하게 된다. 11시 30분, 영/유아/유치부는 지하1층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아동부 전체는 1층 유년부실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취재 / '길가에 교회'

같은 비전을 품고 교회공동체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활기찼다.



본지 기자는 이제 막 창립 한 달을 넘은 "길가에교회" (주님의교회의 첫 번식 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방문했다. 교회는 기독교정신을 교훈으로 하는 동화중고등학교 B동 1층에 위치해 있다.

특별히 "길가에교회"는 교회의 이름처럼 길가에 위치해 국철 '도농역'과 서울-구리-남양주를 이어 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교회에 들어서자 낮익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불과 한 달여 전, 같이 예배하고 봉사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의 청지기가 되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같은 비전을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직 창립초기인 만큼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활기차았다고 한득현 집사는 전한다. 1월 15일 아침,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인호 목사의 말씀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존재를 느끼게 했다. "길가에교회"는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을 "주님의교회"와 공유하며 누구나 쉽게 다가와 접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길가에교회" 담임목사인 이인호 목사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길가에교회"가 인근의 형제교회와 협력하여 남양주시 복음화에 앞장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역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1500원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일 국수, 동전으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음식



하게 되어 있다. 식당 입구와 국수를 받는 배식대 앞에 위치한 헌금함에 해당하는 국수의 수만큼 동전 혹은 지폐를 넣으면 된다. 모여진 헌금은 주

방부의 수입이 아닌, 헌금으로 분리되어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주일 하루 평균 수익은 40여 만원으로 제공하는 2,500여 그릇의 1/3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방부의 헌신된 수고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국수는 500원이라는 동전으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음식이다. 성도들의 의식적인 '국수비 넣기' 참여로 그 헌금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 질 때,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주방봉사자들의 헌신이 더욱 빛나고 그들에게 더 큰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회도서실 이렇게 운영됩니다."



우리교회 5층에 있는 도서실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깔끔하면서도 편리하게 꾸며진 도서실의 한 쪽 부분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일반도서6000권, 아동도서2500권 등 기독교서적과 베스트셀러와 같은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고,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책을 검색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10시~4시(겨울방학중 2월 3일까지 휴관)이다. 토요일은 오전10시~오후5시, 일요일은 8시30분에서 오후4시까지 개방한다. 도서부 운영팀은 가능한 신간을 구입하고,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PCLBOOKS>)를 통해 희망도서를 접수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형서점에 들려 목록을 입수, 양질의 도서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이 지금의 모습처럼 형성되는 데는 성도들의 역할도 컸다. 설립될 당시 교회식구들이 많은 도서를 기증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성도들의 기증도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책은 군부대 혹은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 기증한다. 책은 도서실에 직접 찾아가 등록증을 만든 후 권당 1주일간 대여할 수 있다. 현재 한 주에 대여하는 책의 수가 300여권이다. 대체로 대여기간이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간혹 실수로, 몇 달 만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도서실 총무인 윤복신 집사는 반납 안내를 위해 부득이 전화가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때에 성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했다.

2006년 어와나 불티단!



7-9세 어린이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06년 1월22일~1월29일
- 모집대상 - 7세 : 24명 / 8세 : 2명 / 9세 : 6명
- 회비 - 입단비 : 10,000원 / 1학기 : 40,000원 / 2학기 : 40,000원
- 제출장소 - 월~금 : 1층 교회사무실
토~주일 : 4층 교육전도사실

입단신청서는 1층 교회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어와나 불티단원 중 재입단을 원하는 친구들도 입단원서를 재작성해 주세요.

1. 자금계산서 (총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단위 : 천원)

수	과 목	금	액	집행누계(%)
1. 현금 수입 (예산 4,204,000)	1 ~ 11월	12월	누 계	• 미지출
1. 일반회계 (3,913,000)	3,966,823	345,092	4,311,915	102.6
입금	2,380,290	187,532	2,567,822	
감사	302,325	18,568	320,893	
주말	933,869	74,670	1,008,539	
학교	49,799	5,116	54,915	
2. 결기회계 (230,000)	181,359	45,348	226,707	98.5
신년	46,816	-	46,816	
부활절	63,058	-	63,058	
추수감사	71,485	744	72,229	
성탄절	-	44,604	44,604	
3. 목적회계 (61,000)	119,181	13,858	133,039	218.1
선교	30,700	1,160	31,860	
구제	73,498	10,120	83,618	
복합등기	9,783	165	9,948	
기타	5,200	2,413	7,613	
II. 운용 수익 (163,000)	141,152	18,097	159,249	97.7
1. 예전	55,112	4,480	59,592	
2. 주당	16,552	1,100	17,652	
3. 태원	2,705	368	3,073	
4. 일반한물가	31,252	3,983	35,235	
5. 도서판매대	25,697	7,666	33,363	
6. 기타	9,834	500	10,334	
III. 수입총계 (4,367,000)	4,107,975	363,189	4,471,164	102.4
지 출				
1. 선교회계 (807,700)	903,664 *	217,390 *	1,121,064 *	139.1
해외선교	158,719	11,837	170,556	
국내선교1	178,324	77,597	255,923	
국내선교2	120,650	16,074	136,726	
공출사역	160,245	29,484	189,730	
전도예배팀	61,986	4,651	66,638	
영어예배	4,429	2,127	6,557	
교회번식	219,311	75,620	294,932	
II. 교육회계 (688,300)	492,731	79,190	571,928	83.1
1. 교육1	70,651	13,895	84,550	
2. 교육2	140,277	25,106	165,384	
3. 청년	62,361	6,214	68,576	
4. 양육1	21,054	6,068	27,123	
5. 양육2	17,587	6,635	24,222	
6. 장학	132,512 *	-	132,512 *	
7. 비전(청소년사역)	48,289 *	21,272	69,561 *	
III. 일반회계 (2,148,735)	2,054,721	224,903	2,279,630	106
1. 예배부	25,824	3,742	29,567	
2. 음악부	110,768	23,437	134,206	
3. 봉사부	98,334	29,651	127,988	
4. 문화홍보부	47,999	3,439	51,439	
5. 목회행정	103,527	6,234	109,761	27,420 *
6. 경조	12,089	1,357	13,446	
7. 사무국	1,364,089	150,373	1,514,464	124,079 *
8. 정신학원	164,718	4,359 *	169,077 *	
9. 재정	876	221	1,097	
10. 교회사편찬	-	-	-	
11. 인터넷	20,306	1,954	22,260	
12. 주님의동산	505	136	641	
13. 예비비 (269,240)	105,666	-	105,666	94,000 *
IV. 목회외지출	531,480 *	-	531,480 *	531,480 *
1. 지급이자	14,539 *	-	14,539 *	
2. 차입금상환(단기차입금)	516,941 *	-	516,941 *	
V. 경상지출총계 (4,456,557)	3,982,596	521,483	4,504,102	101.1
VI. 경상지출	125,379	-158,294	-32,938	
VII. 자본지출	210,841	98,000	308,841	
1. 지급보증금(임차보증금)	71,000	98,000	169,000	
2. 비용	40,841	-	40,841	
3. 차량운반금	29,000	-	29,000	
4. 예수보증금	70,000	-	70,000	
VIII. 기타 입금	765,889	291,727	1,057,616	
1. 전도금(절리)	529,187	191,168	720,355	
2. 예수금(발생)	59,738	10,558	70,296	
3. 미수금 (연말정산환급금)	16,439	-	16,436	
4. 선수금	259	-	259	
5. 예수보증금	70,000	-	70,000	
6. 지급보증금(임차보증금회수)	90,000	90,000	180,000	
7. 잡이익	129	1	129	
8. 이자수익	137	-	137	
IX. 기타 지출	688,238	116,099	804,337	
1. 전도금(발생)	636,180	111,474	747,654	
2. 예수금(납부)	50,286	4,625	54,911	
3. 잡손실(교육자 국민연금 기납금)	899	-	899	
4. 미수금	614	-	614	
5. 선수금	259	-	259	
X. 월말잔액	249,207	168,613	168,613	

※ 대외경비 : ₩2,269,193 50.38%

2006년 1월 17일 주님의교회 감사위원회 감사필 :

2. 자금계산서 (위원회, 팀 별)

목 회 별	팀 명	1 ~ 11월	12월	누 계	예 산	비고(%)
선 교 목 회						
해외선교	해외선교	101,483	7,019	108,502	123,840	
	의료	2,962	86	3,048	47,300	
	캄보디아	35,205	2,534	37,739	47,520	
	몽골	-	-	-	1,000	
	중국	13,569	1,300	14,869	14,400	
국내선교1	주한외국인	5,500	900	6,400	26,000	
	소계	158,719	11,839	170,558	260,060*	66.1
	농촌교회	73,848	9,226	83,074	80,000	
	도시교회	33,300	2,600	35,900	38,000	
	학원	23,489	51,094	76,081	75,500	
국내선교2	군부대	33,855	-	33,855	30,000	
	육군훈련소	13,832	14,679	28,511	29,200	
	소계	178,324	77,599	255,923	252,700*	101.3
	한경	-	-	-	4,000	
	호스피스	9,593	3,743	13,336	17,700	
공출사역	법률상담	-	-	-	-	
	전환상담	1,437	747	2,184	4,500	
	복지	35,128	3,600	38,728	61,200	
	장애인	5,292	886	6,178	6,140	
	기관선교	69,200	7,100	76,300	70,400	
공출사역	소계	120,650	16,076	136,726	133,940*	102.1
	구제	82,699	6,050	88,749	73,240	
	119	31,657	3,300	34,957	-	
	탈북자	8,450	3,700	12,150	10,000	
	소년소녀	20,924	5,750	26,674	23,160	
전도예배	결식아동	9,319	8,955	18,274	18,600	
	단정단수	323	490	813	-	
	일행근로자	6,073	840	6,913	8,000	
	노숙자	800	400	1,200	-	
	소계	160,245	29,485	189,730	100,000*	191
영어예배	영어예배	61,986	4,652	66,638	50,000*	133.3
	교회번식	4,429	2,128	6,557	10,000*	65.6
	교회번식	219,311	75,621	294,932	1,000*	
	합 계	903,664 *	217,400 *	1,121,064 *	807,700 *	139.1

교 육 목 회					
교육1위원회	통합유아	2,464	411	2,875	3,000
	통합아동	4,071	393	4,464	3,700
	영아	2,919	552	3,471	3,600
	유아	5,934	1,853	7,787	6,100
	유치	7,151	2,508	9,659	8,000
	유년	11,472	3,995	15,467	14,500
	초등	19,018	2,408	21,426	20,000
	소년	17,622	1,779	19,401	18,500
교육2위원회	소계	70,651	13,895	84,550	77,400
	교육지원	37,499	21,014	58,513	68,000
	중등부	36,559	454	37,013	36,000
	고등부	38,078	- 885	37,193	34,000
	유소년축구	7,209	-	7,209	8,000
청년위원회	AWANA	20,932	4,524	25,456	20,000
	소계	140,277	25,107	165,384	166,000
	청년	52,101	4,459	56,560	60,000
	30대사역	10,259	1,756	12,015	7,400
	소계	62,361	6,215	68,576	67,400
양육1위원회	새가족	12,611	2,134	14,745	10,000
	가정사역	5,657	3,120	8,777	15,000
	하프타임	2,786	814	3,600	4,000
	소계	21,054	6,069	27,123	29,000
양육2위원회	양육사역	8,373	4,488	12,861	18,000
	목요모임	2,051	900	2,951	5,500
	장학기금	7,163	1,247	8,410	5,000
	소계	17,587	6,635	24,222	28,500
장학위원회		132,512 *	-	132,512 *	150,000 *
비전(청소년사역)		48,289 *	21,272 *	69,561 *	170,000 *
합계		492,731	79,197	571,928	688,300
83.1 202,073 *					
일 반 목 회					
예배위원회	예배부	18,795	1,948	20,743	27,700
	안내부	1,484	-	1,484	1,400
	통역사역	2,799	-	2,799	2,000
	새벽기도	-	-	-	500
	세례사역	2,744	1,795	4,539	6,000
음악위원회	소계	25,824	3,743	29,567	37,600
	호산나	22,442	2,744	25,186	25,000
	시온	44,951	2,422	47,373	36,800
	살롬	24,586	16,398	40,984	32,600
	할렐루야	18,789	1,874	20,663	19,550
봉사위원회	소계	110,768	23,438	134,206	113,950
	봉사부	33,331	17,389	50,720	54,300
	주방부	32,123	5,966	38,089	38,800
	주자안내	3,178	2,121	5,299	3,500
	자원봉사	3,735	-	3,735	1,000
문화홍보위원회	일반한물가	6,389	1,474	7,863	9,000
	서점사역	18,808	2,704	21,512	20,000
	결혼예식	770	-	770	2,000
	소계	98,334	29,654	127,988	128,600
	홍보출판	19,520	1,100	20,620	21,000
목회행정	항동함물	10,344	444	10,788	15,000
	음향	821	-	821	2,000
	영상	1,643	-	1,643	2,000
	도서실	15,671	1,896	17,567	10,000
	소계	47,999	3,440	51,439	50,000
경조위원회	경조1	103,527	6,234	109,761	91,000
	경조2	6,202	642	6,844	9,000
	소계	5,887	715	6,602	9,000
재정위원회	경조	12,089	1,357	13,446	18,000
	관리부	-	-	-	1,000
	계수부	876	221	1,097	1,000
교회사편찬	소계	876	221	1,097	2,000
		-	-	-	15,000
	인터넷부	20,306	1,954	22,260	20,000
주님의동산	주님의동산	505	136	641	2,000
	합계	419,624	70,177	489,801	478,150
사무국					1,676,932
1. 사무실		1,364,089	150,373	1,514,464	1,430,344
사례비	교육자 및 직원사례	655,427	62,562	717,989	11,486 *
상여금	교육자상여금	88,640	37,223	125,863	9,153 *
퇴직금	교육자퇴직금	26,197	-	26,197	-
잔금	잔금	12,996	1,400	14,396	-
복지후생비	총회연금	-	-	-	-
	국민연금	15,577	2,781	18,358	-
	건강보험료	14,523	1,192	15,715	-
장학위원회	장학기금	7,163	1,247	8,410	5,000
	소계	17,587	6,635	24,222	28,500
	장학위원회	132,512 *	-	132,512 *	150,000 *
비전(청소년사역)		48,289 *	21,272 *	69,561 *	170,000 *
합계		492,731	79,197	571,928	688,300
83.1 202,073 *					
일 반 목 회					
예배위원회	예배부	18,795	1,948	20,743	27,700
	안내부	1,484	-	1,484	1,400
	통역사역	2,799	-	2,799	2,000
	새벽기도	-	-	-	500
	세례사역	2,744	1,795	4,539	6,000
음악위원회	소계	25,824	3,743	29,567	37,600
	호산나	22,442	2,744	25,186	25,000
	시온	44,951	2,422	47,373	36,800
	살롬	24,586	16,398	40,984	32,600
	할렐루야	18,789	1,874	20,663	19,550
봉사위원회	소계	110,768	23,438	134,206	113,950
	봉사부	33,331	17,389	50,720	54,300
	주방부	32,123	5,966	38,089	38,800
	주자안내	3,178	2,121	5,299	3,500
	자원봉사	3,735	-	3,735	1,000
문화홍보위원회	일반한물가	6,389	1,474	7,863	9,000
	서점사역	18,808	2,704	21,512	20,000
	결혼예식	770	-	770	2,000
	소계	98,334	29,654	127,988	128,600
	홍보출판	19,520	1,100	20,620	21,000
목회행정	항동함물	10,344	444	10,788	15,000
	음향	821	-	821	2,000
	영상	1,643	-	1,643	2,000
	도서실	15,671	1,896	17,567	10,000
	소계	47,999	3,440	51,439	50,000
경조위원회	경조1	103,527	6,234	109,761	91,000
	경조2	6,202	642	6,844	9,000
	소계	5,887	715	6,602	9,000
재정위원회	경조	12,089	1,357	13,446	18,000
	관리부	-	-	-	1,000
	계수부	876	221	1,097	1,000
교회사편찬	소계	876	221	1,097	2,000
		-	-	-	15,000
	인터넷부	20,306	1,954	22,260	20,000
주님의동산	주님의동산	505	136	641	2,000
	합계	419,624	70,177	489,801	478,150
사무국					1,676,932
1. 사무실		1,364,089	150,373	1,514,464	1,430,344
사례비	교육자 및 직원사례	655,427	62,562	717,989	11,486 *
상여금	교육자상여금	88,640	37,223	125,863	9,153 *
퇴직금	교육자퇴직금	26,197	-	26,197	-
잔금	잔금	12,996	1,400	14,396	-
복지후생비	총회연금	-	-	-	-
	국민연금	15,577	2,781	18,358	-
	건강보험료	14,523	1,192	15,715	-

(1면에 이어서)

3부 예배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

주방 마무리를 함께 해 줄 남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이기 이전에 봉사하는 사역자 자신에게 무엇보다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라며 봉사부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고 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주차안내부 사역팀원들은 매주일 아침 8시 40분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부실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차안내 사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사역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 정도의 인원수로 매 주일마다 힘겹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주방부 역시 매 주일 2,500여 그릇의 국수를 성도들에게 제공 하는

데, 담당 구역원들의 지원이 있지만, 시간에 따라 봉사자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주방부 사역을 마무리하는 3부 예배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 주방 마무리를 함께 해 줄 남자 성도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2-3명의 성도가 매 주일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봉사부는 또한 주일에 로비에서 성도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커피를 끓이고, 끓인 커피를 나르고, 잔을 씻고, 다시 나르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봉사부 역시, 지원한 성도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힘들지만 귀하고 의미 있는 봉사부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길 원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봉사사역본부 이호목사는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문의

봉사사역본부 : 이호 목사 011-496-2334

박의일 목사 011-334-4076

차량부 : 김동일 안수집사 011-279-6610,

총무 이재덕 집사 010-6346-3551

주방부 : 유은숙 권사 016-620-3445

봉사부 : 김영봉 안수집사 011-207-1966

오늘 기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치부

주일 아침 11시가 조금 넘으면 변함없이 지하 유치부실에는 주님의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200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유치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도 유아부에서 무럭무럭 씩씩하고 아름답게 자란 6살 어린이들이 유치부로 올라왔다. 아직은 새로운 예배실이 어색해 수줍어하기도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눈은 유아부 때와 같이 티없이 맑아,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곳곳에서 새로운 유치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해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유현숙 부장과 한영미 담당권사는 2005년 12월 아쉬운 인사를 했고, 박지원 집사와 우일강 권사가 그 자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 아직 고등학교 졸업식을 치르지도 않은 사회 초년생의 젊은 교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유치부의 2006년 주제말씀은 삼상 12:24의 말씀이다. 기도로 준비한 예배와 행사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의미를 배우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 것이라고 유치부를 담당 한 김성민전도사는 전한다.

유치부 예배 안내

대상 : 6-7세 어린이

시간 :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지하1층 유치부실

‘나쁜 아빠’가 오는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아버지학교’ 현재 접수 중



우리 교회에서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아버지학교에서 지원자를 현재 접수 중에 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한 역할이다. 그 아버지로는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의 영적리더로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학교에 ‘나쁜 아버지만 간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학교에 추천하면 화를 내거나 한사코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학교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다.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들도 많이 지원한다. 또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 아내와 더욱 친밀하기 위해,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아버지들도 있다. 완벽한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 아버지학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등 신실한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 동부지역에서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섯 교회에서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 현재 인천, 청주 등 원근지역에서도 지원하는 등 벌써부터 지원자가 답지고 있어 조만간 지원자 접수를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

아버지학교에 등록 등에 대한 문의는 조선연 집사(017-747-1233)나 가정사역팀 담당 정희성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썩트네’ 찬양축제로 새해 시작

새해 들어서 ‘썩트네’는 찬양축제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번 아이들과 몸을 움직이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썩트네’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여러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고려,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축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문지를 가지고 치마나 망토를 만들기도 하고, 바람소리를 내기도 하고, 눈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과 찬양을 함께 하게 된다.

지난 주 예배시간에는 리본을 흔들거나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씩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넓은 유아부실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모두 흥겨운 모습이었다. “‘썩트네’의 찬양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썩트네’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썩트네’는 2부 예배시간(주일 오전 9:30-10:30)에 운영되는 교회학교의 한 부서로 취학전 어린이들로 구성된 예배 및 교육 공동체이다. 해당되는 자녀를 동반하여 교회에 오는 부모들은 1층 사무실 옆, 유아부실에 어린이 자녀들을 맡기고 장년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